**1요0408 Note**

**◆ 영광에서 영광으로, 김옥경 p43**

"너희는 내가 전능자이고 절대 주권자이기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을 거라 생각하여, 나의 마음에 무관심하고 나의 슬픔에 동정하지 않고 있단다.

나의 마음에 무관심하고 나의 슬픔에 동정하지 않고 있단다. 너희가 내게 얼마나 무정하고 냉혹한지 아느냐?

내게는 깊고 깊은 아픔의 강이 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의 강물이 너희를 향한 사랑의 길을 따라 굽이쳐 흐르는 것을 너희는 전혀 에상하지 못하고 있단다. "

이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픔의 정체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에 세상과 영혼들을 담으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 세상의 모든 질고와 간고가 슬픔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으시고 부인하신다면, 자신과는 완전히 무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세상을 싫어 버리지 않으시고, 그 품에 움켜 안고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그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